

## 다카사고 신사

### 상야등

1799년에 만들어진 석조 등롱입니다. 당시에는 세토 내해 동부의 하리마탄 해안에 인접해 있어 오가는 선박을 위한 등대 역할을 했습니다. 이렇게 마을은 항구로 인기를 끌며 중요한 교역소, 지역의 중계지점으로 발전했습니다. 현재의 상야등은 다카사고 신사 경내로 이전되어, 사람들이 여행의 안전을 기원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 본전

다카사고 지역의 상징인 이 신사는 약 1,700년 전에 해안가에 지어졌습니다. 모래사장과 소나무 가로수가 있는 매력적인 장소였을 것입니다. 그 후, 방위 목적으로 성을 쌓기 위해 이축된 후, 다시 현재의 위치로 옮겨졌습니다. 사람들은 본전 지방 위에 있는 사나운 얼굴의 기와가 악령을 쫓아내고, 바다 재해로부터 사람들을 지키며 사랑하는 남녀에게 행운을 가져다준다고 믿습니다.

### 노(能) 무대

2013년에 노(能)의 상연 작품인 '다카사고'의 기원으로 불리는 이 장소에 노(能) 무대가 세워졌습니다. 이 작품은 유네스코 무형 문화유산으로 일본 전통 예능인 '노(能)'의 제1인자로 불리는 배우 겸 극작가인 제아미 모토키요(1363-1443)가 쓴 것입니다. 극 중에서 가수는 “다카사고에서 배에 돛을 올려 포구를 넘고 넘어, 달과 함께 밀려오는 밀물의 파도, 아와지 섬 그림자를 스쳐 멀어지는 나루오 앞바다를 지나, 벌써 스미노에에 닿았네. 스미노에에 닿았네”라고 노래합니다. 부부화합을 연상시키는 이 노래에는 현재의 효고현과 오사카부의 여러 장소가 등장합니다. 커다란 노(能) 무대는 이 작품을 축하하고, 이 지역과 부부화합의 관계를 강조하기 위해 지역주민들이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무대에 그려진 소나무에는 3개의 하트 모양이 숨겨져 있는데 3개의 하트 모양을 모두 발견하면 행복해진다고 합니다.

### 상생의 소나무

'상생의 소나무'로 알려진 이 유서 깊은 소나무는 같은 뿌리에서 자란 두 그루의 소나무로 되어있습니다. 적송은 암나무, 흑송은 수나무라고 합니다. 노(能)의 상연 작품인 「다카사고」에서는 이 나무가 부부화합의 상징으로 묘사됩니다. 극 중 다카사고의 요묘쿠(謡曲)라 불리는 노래는 일본 전통 결혼식에서 자주 선보입니다.

### 구라쿠 마쓰에몬 상

다카사고 지역 출신인 구라쿠 마쓰에몬(1743-1812)은 해상 운송선을 운영하며 토목공사를 했습니다. 그는 배에 사용되는 무명 직조의 마쓰에몬 범포를 발명해 일본 해운업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튼튼하고 유연한 이 소재는 전국에서 배의 범포로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구라쿠 마쓰에몬의 토목사업은 다카사고 지역을 포함한 항구의 항만시설 개선에도 공헌했습니다. 그밖에 수혜를 입은 항구로는 히로시마의

도모노우라, 홋카이도의 2 개 항구인 에토로후(이투루프)토와 하코다테가 있습니다.